

정재호展

윤제(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국 차장)

정재호의 작업을 보는 것은 즐겁다. 그가 공부했던 샌프란시스코의 맑은 햇살이 그의 작업 속에서 고스란히 빛나고 있는 것 같다. '낙산프로젝트'나 이전에 보였던 시트지 작업은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시트지 작업과 그림의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였다. 밝은 색상이 많지만 화려하지 않은 그의 풍경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환영(illusion)에 의한 회화성의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슈퍼리얼리즘처럼 완벽한 사실성을 그는 보여주려하기보다는 일종의 감각이 편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사실적 세계를 회화로 재현하려하기보다는 일종의 의식이 불안정하거나 흥분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치 카뮈의 《이방인》에서 뫼루소가 눈부신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같이 그의 태양빛 아래 풍경들은 이글거리며 왜곡된다. 이러한 풍경은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도시의 풍경이기에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의 밝은 색상과 거울에 반사되어 왜곡된 이미지들이 관람객에게 도시생활에서 경험했음직한 공황상태의 현기증, 메스꺼움이나 비정상적인 상태의 환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작품 속에 있는 이미지와 광고판들은 특정의 언어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강렬한 빛 속에 녹아든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표피적인 조형언어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설이나 영화의 심리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현장을 그리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일상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직접적 메시지보다는 전통 회화의 의미를 중시해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요사이 젊은 작가들이 가벼운 조형효과만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에 비해 그의 작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달콤한 토핑이 잘 올라간 케이크와 같은 장식적인 회화와 실존적인 세계를 화면에 담아내는 존재자로서의 회화라는 진지함 사이에 있다.